

故 김용균 4주기...추모위원회 구성 "계속되는 참사, 다시 규탄 목소리 낼 것"

✎ 김준 기자 | ⓒ 승인 2022.12.05 16:38

"벌써 4년 겪었지만, 낯선 아들 빈자리"
"화물 노동자 파업까지 영향 미치도록"
"민영화 그만두고 정의로운 전환하라"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129개 단체가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안전을 요구하며 5일부터 10일까지 김용균 4주 추모주간을 갖는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씨의 4주기 기일(10일)을 앞두고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약칭 김용균 4주기 추모위)'를 구성했다. 4주기 추모위는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권리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보이듯 여전히 책임져야 할 위치의 사람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을 비롯해 처벌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모든 노동자에게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잃고, 구의역에서 김군을, 제주에서 이민호 군을, 태안에서 김용균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재난과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도 비판하며 “김용균이 살고자 했던 세상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실천은 계속될 것이며 추모기간 일주일 동안 힘차게 싸워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연대를 부탁했다.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던 한전 KPS 비정규직 노조 김영훈 부지회장은 “정부가 당시 약속한 정규직화는 온데간데없고 대규모 집단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부지회장은 “탄소 중립의 흐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있다”며 “정부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애써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부지회장은 정부에게 “민영화를 그만두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하며 “발전소 노동자들은 김용균 동지를 기억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현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동지들이 6일 차 단식에 접어들어 하루 빨리 이 투쟁이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며 준비된 발언을 시작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법과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도 아픔과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전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기업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던 법에 기업은 빠지고, 기업은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노동자의 무지한 소행으로 치부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김용균 동지에게 더 이상 미안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용균을 기억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모여 노조법 2,3조를 개정을 위한 투쟁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마지막 발언으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이어갔다. 김미숙 이사장은 “벌써 4년을 겪었지만, 아직도 낯설어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악몽을 꾸는 것만 같다”고 마음을 털어냈다. 김미숙 이사장은 “최근 신당역 노동자 살인사건, 파리 바게뜨 노동자 협착사고, 오봉역 철도노동자의 화물열차 사고, 10.29 이태원 참사 등 올해 들어 끔찍한 시민재해, 노동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해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하지만 윤 정부는 반민주적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투쟁하는 수많은 죽음의 희생자들로 인해 성장한다는 말은 아들 사고와 지금까지 수많은 투쟁 현장을 보며 가슴에 사무치도록 깊이 와 닿는 말이지만, 용균이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염병 같은 노동재해를 막기 위해 투쟁을 앞당기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김용균 4주기 추모위'는 4일까지 받은 9,470명의 김용균 재판 피고인 엄중처벌 탄원서명을 8일 대전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일정별, 지역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5일 19시 서산문화원 공연장 3층에서 <김용균, 김용균들> 북콘서트

6일 12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 18시 30분 강릉노동시민사회, 강릉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제

7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 재판관련 증언대회

8일 13시 대전지법 앞에서 김용균 재판 대응 기자회견 개최, 14시 김용균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 참관

고 김용균 씨 기일인 10일 10시 30분 모란공원에서 마석 모란공원 추모제, 16시 광고사거리에서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